

국내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 연구 분석*

A Study on Music Education Programs in School-based Arts & Culture Education Focusing on Literature Analysis

허수연** · 김지혜*** · 유영지**** · 유하양*****

Sooyeon Heo · Jihye Kim · Youngji Yoo · Hayang You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문헌을 분석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방안 및 제도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영향, 교수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보편적 예술교육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범위의 확대, 학교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학교, 교사,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교육의 지속성, 지역과 기관의 연계 시스템 강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셋째, 음악교육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교수의 선발, 교수자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활용도 높은 다양한 주제의 교수자 교육 시스템 마련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음악교육 프로그램, 예술교육활동, 예술강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planning measures and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bas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by analyzing domestic literature. For this purpose, the operation status, impact, and instructors of music education programs in school-bas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were examined,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from 2010 to 2023.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music education programs in school-bas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were being operated to provide universal ar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regions, it was needed to expand the support and scope of the projects as well to support custom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music education programs positively impacted students, schools, teachers, and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as a need for measuring the continuity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gions and institution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he selection of instruc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gram, efficient role distribution among instru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ructor education system on various useful subjects.

Key words: school-bas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arts and culture education, music education program, arts education activities, arts instructor

* This study is a revision of the report conducted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Music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with support from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in 2022.

** First author, E-mail: hsm17@skuniv.ac.kr

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 124 Seokyeong-ro, Seongbuk-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salang@gmail.com

Teacher, Incheon Saebom Elementary School, 34, Angogae-ro 104beon-gil, Yeonsu-gu, Incheon, Korea

**** Co-author, E-mail: youngjiyoo.comp@gmail.com

Student Researcher(Ph.D. degree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1, Gwanak-gu, Seoul, Korea

***** Co-author, E-mail: campanella@snu.ac.kr

Teacher, Suwon Girls' High School, 72, Godeung-ro 59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I.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을 근간으로 다양한 교육 방안과 정책 관련 연구, 실행을 통해 성장해왔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으로(Korea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2017),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이 심미적 체험을 통해 예술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 수요자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를 의미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그들의 개인적 성장을 돕는 의미 있는 학습으로의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Lee, 1996).

우리나라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의 수요자 중심 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에서 주창하는 교육 주체자에 대한 중점 방향과 목표에서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이후 2018년 1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에서 질적 내실화를 중점으로 두면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한 바 있다(<http://www.arte365.kr/?p=63707>). 이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과 자원의 연계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와 다각화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보편적인 수요자 중심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도 이와 연계된 내용에서 제안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음악을 접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하에 인근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대상,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성, 바른 인성 및 학습태도를 함양시키고, 사회문화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음악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Jeong, Mo, Seog, Kim, & Park, 2012b).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음악행사 참여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Lee, Choi, Kang & Park, 2019).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설립 의도에 맞게 실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교수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수요자는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학습자를 의미하고, 공급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예술교육 전문가인 예술강사가 포함된다(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a). 따라서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성장을 돕는 교수자는 중요한 교육 주체이며, 이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맡는 역할과 자격, 실태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 즉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본래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프로그램의 영향, 교수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사업별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교사, 학교 교육과정,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 교수자의 자격 및 선발 과정, 역할 및 관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2010년에서 현재까지의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음악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교육청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고문, 각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별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II.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 현황

1.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술중점학교’, ‘예술이음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꽃 씨앗학교’는 학교특색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인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 학교정보공시알리미를 비롯하여 학교예술교육포털과 각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1) 예술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는 일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술 심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중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 중심의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러한 프로그램은 예술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 학급의 학생들도 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발 과정에 있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Kwon, Lee, Kim, & Yoon, 2013).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총 55교에서 예술중점학교(음악, 미술, 공연 분야 모두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이들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술중점학교 운영 기본 계획 및 운영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음악 분야 예술중점학교는 서울은 2개교, 경기도는 9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음악 분야 예술중점학교 운영교 현황은 <Table 1>과 같다.¹⁾

<Table 1>에 제시된 11개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음악중점학급 신입생 선발 요강, 학교예술교육포털에 제공된 예술중점학교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학교정보공시알리미에 공개된 교육운영 특색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서울 지역 운영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예술중점학교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경기 지역 운영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예술중점학교 운영교 현황’에 나와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알리미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2022년 운영 여부를 파악하였다.

<Table 1> 2022 Arts-specialized schools for music in Seoul and Gyeonggi

	Middle school		High school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Seoul	-	-	-	Daewon girls' high school, Youngsin girls' high school
Gyeonggi	Cheonlim middle school, Gwangmyeong middle school, Youngbuk middle school, Hyoja middle school, Youngjung middle school	Hwado middle school	Suwon girls' high school	Yulgok high school, Donghwa high school
Total(N)	5	1	1	4

우선, 공립중학교의 비중이 높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5개 운영교 중 1개교만 공립학교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예술중점학교의 특성상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가 요구되는데, 입시 위주의 학교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술계열 희망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와 다르게 전보로 인해 교원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교과 개설과 관련하여 타 교과 교사들과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중점학교의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Kim & Ahn, 2022).

다음으로,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음악 분야에 흥미,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학급당 20~3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음악 중점 학급을 별도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으로는 전공 실기를 비롯하여 시창청음, 연주, 합창·합주, 음악사, 음악이론, 공연 실습 등의 심화 과목이 개설,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클래식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실용음악(보컬, 베이스, 통기타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았고, 자유학기제의 예술체육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과 연계하여 악기반 개설, 공연 관람, 전문연주자 초청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발 방식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학생들과 같이 추첨으로 선발하거나 학교장 혹은 담임교사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대회 입상 점수를 기준으로 모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류평가와 면접, 내신성적, 실기평가 점수

등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예술이음학교

예술이음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9년 총 11개교(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예술이음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3년간 운영되었다(Paek, 2020). 해당 학교들은 ‘운영모델 개발’이라는 취지에 따라 학교별 특색에 맞게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는데, 학교예술교육포털에 게시된 2021년 3차년도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예술 관련 교과 시수를 최대한 증대하고, 방과후학교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가령, 마포초등학교는 음악 교과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폭넓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예술동아리 및 자율동아리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상설발표장을 구축하여 학생 주도의 체험 중심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관평중학교는 기타반, 밴드반 등의 음악 공연 관련 동아리를 개설하거나, 학급송 만들어 부르기, 노래 가사 받아쓰기 등의 자율활동을 운영하였다. 특히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오카리나와 리코더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연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내버스킹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예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 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교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역예술전문가를 섭외하여 담당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수요일 1교시에 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초대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백암초등학교는 인근 대학이나 지역 내 예술기관과 협력하여 뮤지컬, 난타, 농악, 탈춤 등의 수업을 진행하거나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현고등학교는 지역문화 예술자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예술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자신이 기획한 예술 활동을 예술가와 함께 실행하는 예술 주제 캠프를 운영하였다. 또한 밴드동아리와 민요동아리를 주축으로 교외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거나 지역 내 연주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등 지역의 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형태로 예술교육활동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었다.

3)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는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 해소 및 학생 정서 결손 회복을 지원하고, 인근 학교·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2016년에는 ‘예술교육거점학교’와 ‘예술드림학교’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부터 예술드림거점학교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Jung, Kim, & Jeong, 2022), 2021년 기준으로 168교(초등학교 73개교, 중학교 63개교, 고등학교 32개교)가 운영 중이다. 운영교가 많은 관제로 학교급별로 무작위로 1개교를 선정하여 음악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인 1악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악기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핸드벨, 가야금, 중학교는 바이올린, 우쿨렐레, 칼림바, 고등학교는 소금, 우쿨렐레, 드럼, 오카리나 등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운영교를 중심으로 인근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교의 경우, 악기 강습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작은 음악회나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전교생에게 연주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와 연계하여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넷째, 다른 문화예술지원사업이나 학교 특색 사업과 연계하여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악기지원사업이나 메이커교육과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4)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a). 2008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144개의 학교가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표현력의 증진’,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집중 지원을 위한 우수 모델 창출’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최대 4년간 운영을 지원하여 전교생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Park, 2021).

학교정보공시알리미에 2022학년도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계획을 탑재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일부 운영교의 음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송덕초등학교는 정규 교과로 뮤지컬 교실, 방과 후 수업으로 피아노 교실과 악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아노 교실은

1~4학년, 뮤지컬 교실은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뮤지컬 교실의 경우, 타 교과와 연계하여 융합 수업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악기 교실은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플루트와 클라리넷 중 한 가지 악기를 선택하여 1년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뮤지컬의 오프닝이나 엔딩곡을 연주하는 형태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향초등학교는 지역예술단체와 협력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 주민 및 인근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AI와 함께 하는 예술 활동으로 서로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역량, 시나브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AI와 결합한 뮤지컬이나 리코더 앙상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영향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 사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탐색하여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과 프로그램이 학생,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어졌다. 프로그램이 영향을 준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예술적 측면, 인성 및 학습 태도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예술적 측면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토대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예술교육 시행을 추진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따라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한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적 측면을 길러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에는, 예술꽃 씨앗학교에 대한 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학교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Park, 2021).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Park, 2021).

예술꽃 씨앗학교의 예술적 효과에 대한 연구 문헌 중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

하거나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Jeong, Mo, Seog, Kim, & Park, 2012b; Jeong, Yoo, Jeon, & Park, 2014). 예술꽃 씨앗학교를 4년 동안 운영한 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하여 효과성을 사전·사후 검사로 비교한 연구(Jeong, Mo, Seog, Kim, & Park, 2012b)에서는 예술적 영역 중 음악적 효능감, 음악 기능, 음악적 창의성, 음악 표현력, 음악 리더십, 음악 사회성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예술꽃 씨앗학교에서의 음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Jeong, Mo, Seog, Kim, & Park, 2012b).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Jeong, Mo, Seog, Kim, & Park, 2012b).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예술꽃 씨앗학교가 학생들이 졸업 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을 실시한 연구(Jeong, Yoo, Jeon, & Park, 2014)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문화예술 감상능력 등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문화예술 기자의 사용,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문화 공연 관람, 문화예술과 관련한 체험활동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Jeong, Yoo, Jeon, & Park, 2014). 이는 학교 예술문화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한 학교를 단일사례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학생들에게 미친 예술적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Park, 2015; Park, 2021).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된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교육 외에 사교육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국악기 연주 기량이 향상되었다(Park, 2015). 한 초등학교에서는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뮤지컬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노래나 신체 움직임, 대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성, 문화적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나 학교 교육에서 예술교육이 꾸준히 실시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Park, 2021).

예술꽃 씨앗학교 이외에,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예술적 효과를 다룬 주제도 연구되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비교(Ryu & Kim, 2018), 국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Seog, Kwon, & Oh, 2010)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외부 예술강사 지원사업만 실시하는 학교와 비교하여 조사한 연구(Ryu & Kim, 2018)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만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특히, 문화예술기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문화예술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Ryu & Kim, 2018). 석문주, 권덕원, 오지향(Seog, Kwon, & Oh, 2010)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예술꽃 씨앗 학교, Arts-Echo 프로젝트, 오페라야 놀자, 오케스트라와 놀자, 청소년 국악 어깨동무,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음악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악적 기량의 전수, 음악과의 단순한 접촉에 그치거나 재미만을 추구하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하였다.

(2) 인성 및 학습태도의 측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의 예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배려심, 공동체 의식, 사회성 등의 인성적 측면과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효능감, 학습 동기유발 등 학생의 학습 태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났다.

인성적 측면에서는 협동심, 배려심, 공동체 의식, 사회성 등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정문성, 석문주, 모경환, 김해경, 박새롬(Jeong, Seog, Mo, Kim, & Park, 2012a)의 연구에서, 협동-사회성 영역에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관계, 과제를 할 때 협업을 하는 정도, 협업할 때의 끈기 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예술꽃 씨앗학교는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협동-사회성 영역의 인성적인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영(Park, 2015)의 연구에서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협동심, 배려심,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꽃 씨앗학교의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았는데, 이때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다(Park, 2015). 더불어 공연 경험을 통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무대나 행사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Park, 2015). 또한, 초등학교 때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교육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도 협동심, 자제력, 발표력,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다 (Jeong, Yoo, Jeon, & Park, 2014).

학습 태도의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 유발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뮤지컬 창작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학습에의 자신감과 동기를 유발하는 데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Park, 2021)와 자기 효능감의 평균이 사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하위 영역에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에서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Kim & Choi, 2013).

또, 학생들이 기악합주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 증진에도 도움이 되었다. 반면, 친구들과의 합주 과정에서 연주 수준의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히려 자신감이 하락하는 학생도 있었다(Kim & Choi, 2013).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류기혁, 김선경(Ryu & Kim, 2018)의 연구에서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 지원사업만 실시하는 학교에 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서 효과를 보였다. 학교 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 동아리라도 적절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교사들과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여러 영향이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후 전반적인 학교 문화의 변화로 인해 교사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교수법을 발전시키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정규 교육과정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하면서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교사 자신이 오케스트라나 악기 등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즐기게 되는 등의 변화도 나타났다(Park, 2015). 그러나 교사들은 기존 업무에 예술꽃 씨앗학교 업무가 더해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예술 강사와 교실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신의 교실을 개방하게 되어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으며, 예술 강사와의 협업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Park, 20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교사들이 교수법을 개발하고 자기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하는 기회가 늘게 되었다(Jeong, Mo, Seog, Kim, & Park, 2012b).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역량이 강화되고 학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경진, 최나영, 강주희(Lee, Choi, Kang & Park, 2019)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획 역량이 강화되었고, 문화예술활동을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에 적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는데, 예술 강사의 모호한 역할과 자격,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예술 강사를 보조 인력으로 인식하는 학교와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예술강사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학교 대외적 이미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 프로그램은 학교 안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 문헌들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로 지역주민에게 예술문화교육 기회가 확충되는 등의 효과를 언급하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에 학부모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ark, 2015). 학생들이 예술꽃 지원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여론 변화로 학교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Park, 2015). 하지만 연구 사례에 해당하는 학교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는 점과 운영예산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영향의 한계점도 드러난다(Park, 2015).

정문성, 모경환, 석문주, 김해경, 박새롬(Jeong, Mo, Seog, Kim, & Park, 2012b)의 연구에서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교육청 등의 관심이 증가되어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시설 활용도 증가 등 지역기반 예술 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문화예술적 역량도 증진되었으며, 문화예술 설비 확충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 자본 등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우주희(Woo, 2008)가 분석한 경기문화재단의 방과 후 학교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활동의 결과물로 학교의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학부모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해 지역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역주민 교육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ee, Choi, Kang & Park, 2019). 최근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이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중 마을공동체 기반 문화예술교육(Jung, Kim, & Jeong, 2022)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 기반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화공급자, 문화기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으로(Jung, Kim, & Jeong, 2022)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 또한, 학교-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의 교수자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내의 예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외의 자율동아리, 방과후학교 활동에서 고루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담당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 교수 체제로 운영된다. 음악 분야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 음악 교과 수업을 음악 교사와 국악 강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동아리 활동,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각 학교에서 지도 강사를 선발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청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사 선발 공고문,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및 안내문, 국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자격 요건 및 선발 방법, 교수자의 역할 및 관계, 교수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1) 교수자의 자격 요건 및 선발 방법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중 예술강사를 선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위학교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예술강사를 학교의 운영계획에 맞춰 지원받는 것이다. 2) 첫 번째 방법은 다시 단위학교에서 개인 강사를 선발하는 경우와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에 위탁하여 업체로부터 강사를 파견받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업체 위탁의 경우 강사의 인사 관리가 각 업체에서 이루어져 자격 요건이나 선발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단위학교에서 선발하는 개인 강사를 첫 번째 유형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를 두 번째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격 요건 및 선발 방법을 살펴보았다.

먼저, 20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시된 음악(국악) 분야 강사 모집 공고를 살펴본 결과, 음악 교과, 방과후학교, 음악중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등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각 학교의 강사 선발 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 및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토대로 하여 ‘해당

2) 이 외에도, 지역 문화재단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강사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단위의 집단, 즉 단위학교 선발 강사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의 두 경우만 살펴보았다.

분야 대학 졸업자’, ‘관련 과목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음악교육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강사 자격 요건의 차이는 모집 공고문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의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증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사업별로 그 목표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강사’ 자격 요건을 그대로 모든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보다는 각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강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강사의 확보가 교육의 질 향상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나는 바(Lee, Choi, Kang & Park, 2019; Lee, Lee, Yoon, & Kim, 2020; Yoon, Kim, Lee, Lee, & Ok, 2022)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산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강사 채용 정보 및 인적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Lee, Choi, Kang, & Park, 2019),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강사 선정(Lee, Lee, Yoon, & Kim, 2020)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강사 선발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2023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강사 선발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매년 기존 강사 우선 선발 후 신규 강사를 선발하며, 그 중 유일한 음악 분야인 국악 분야에서는 서류 심사 후 모의 수업, 실기 심사, 이론 구술 심사로 이루어지는 면접 심사를 통해 강사를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b). 강사 자격 요건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에 지원할 경우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국악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국악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에만 지원할 경우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국악 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b).

이와 같은 강사 자격 요건 및 선발 방법은 국악 외 7개 예술 분야에서도 모두 동일하며 초·중·고 학교급의 차이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 분야별,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강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와 비교과(창의적 체험학습)의 특성에 따라 교수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격 요건이 보다 세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Kim & Kang, 2016). 또한, 현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강사 자격 요건에는 예술가(예술활동증명 확인서)와 예술교육가(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라는 두 개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예술가의 보조적 일자리 창출과 별도의 직종으로서의 예술교육가 양성이라는 사업 운영방침의 모호성(Kim, 2010)이 여전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예술강사의 교육적 전문성 부족

(Kim & Kang, 2016; Lee, Lee, Yoon, & Kim, 2020), 예술강사의 고용 문제(Kim, 2010; Kim, 2017) 등 여러 가지 관련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예술가와는 차별된 예술교육가라는 정체성을 강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보다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2) 교수자의 역할 및 관계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예술강사가 각각의 교육 전문성과 예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협력 교수 체제 속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은 주 혹은 보조의 개념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인식되고 분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Kim, Ryu, Park, & Chung, 2019). 교수자 간 협력은 프로그램에 응집성을 부여하며 교수자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도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Rim, 2013).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협력수업은 교수자에게 수업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학교의 문화, 교육과정 상의 위치, 예술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Kim, Ryu, Park, & Chung, 2019).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수자 간 역할의 인식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협력수업의 개념과 목적, 역할 분담에 대한 정보 부족(Lee, Lee, Yoon, & Kim, 2020), 교사와 예술강사 간 인식 격차(Rim, 2013), 동학년 교사 간 협의 부족(Lee, 2020), 교사와 예술강사 간 충분한 의사소통 시간 마련의 어려움(Kim & Lee, 2022) 등이 그 원인이다. 2023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강사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교사와 예술강사의 학기 전 사전협의와 학기 중 중간협의를 위해 예술강사에게 각각 1시수의 강의료가 지급되는데(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c), 한 학기에 단 2시수만으로는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담당 교사에 대한 보상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Kim, Ryu, Park, & Chung, 2019). 따라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역할 모델의 제시, 교사와 예술강사의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동학년 교사 간, 그리고 예술강사와 교사 간 충분한 협의 시간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로 링크’, ‘예술꽃 씨앗학교’와 같은 최근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문화예술매개자(또는 문화기획자)와 같은 제3의 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인력의 관계망 속에서 교사와 예술강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수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이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Han, 2019). 예술적 소통은 일반 언어로 불가능하므로 타 교과에 비해 교수자의 역량에 더욱 의존적이며,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역량은 예술강사 개인이 경험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유능한 교수자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훈련과정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Joo, 2021). 이에 문화예술교육 교수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교수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의 각 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된다(Lee, 2020). 그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22년에 실시된 음악(국악)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집체, 동영상, 원격 교육의 세 가지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예술강사를 위한 연수로는 교육(Teachin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교사를 위한 연수로는 예술(Ar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d). 학교예술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 음악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많았고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국악보다 음악의 비중이 높았으며 오디오이션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d).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연수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예술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 현장의 이해를 위한 것이거나 예술교육 전반과 관련된 것이어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강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Lee, 2020). 따라서 예술강사의 음악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악 분야 연수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교원의 문화예술교육 연수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연수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이해도가 낮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의 수가 매년 점점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Park & Park, 2022). 또한 역량 향상,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현장의 질 제고와 같은 간접적 활용도에 비해 연수 내용이나 진행 방식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활용하는 직접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Han, 2019). 따라서 교원의 연수 참여를 확대하고 실천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다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문헌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맞게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보편적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영향, 교수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음악교육의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음악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하고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보편적 차원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교육적 목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학습자에게 효용성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있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기악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교과 시간 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후 수업이나 여름 캠프 등을 통해 심화된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이나 학교 유형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지원사업 간에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악기 구입 및 대여,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시설 및 강사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물질,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각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영향에 있어서는 학생,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여 주었고 자율적인 학습 태도와 바른 인성을 기르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교사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학교 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담당 교사와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업무 분담이 요구되며, 문화예술교육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다른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강

사와의 마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협업 체계와 역할 분담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과 학교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기관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자의 자격 요건 및 선발 방법, 교수자의 역할 및 관계, 교수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크게 단위 학교 선발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단위 학교에서 선발하는 강사의 경우 기존의 ‘학교 강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음악교육 프로그램별 강사 자격 요건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의 경우 타 예술 분야와 동일한 자격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의 차이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가가 아닌 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 역할 분담보다 협의와 소통을 통한 역할 인식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호한 지침, 불충분한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자 간 역할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개인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교육 현장에서의 직접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교육 프로그램별, 학교급별 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교수자 선발 방법 탐색, 교사와 예술강사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모델의 제시, 교사 간 그리고 교사와 예술강사 간 협의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교수자의 실천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영향, 교수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자료상에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기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실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Choi, E., Lim, E., Yang, S. Y., Kim, J. H., & Park, C. W. (2022). Developing a blended curriculum for art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to expand universal accessibility:

-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art & culture education field’ subjec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1), 137-157.
- External Cooperation Team (2022). *Announcement of the five-year comprehensive plan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2018~2022)*. Retrieved November 3, 2022, from <http://www.arte365.kr/?p=63707>
- Han, C. H. (2019). A Study on the training plan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human resource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 on work-site application of arte academy train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4), 275-283.
- Jeong, M. S., Seog, M. J., Mo, K. W., Kim, H. K., & Park, S. R. (2012a). The effects of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on the primary school students: Art-flower seed school projec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2), 267-284.
- Jeong, M. S., Mo, K. W., Seog, M. J., Kim, H. K., & Park, S. R. (2012b). The effects of the art-flower seed school project o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1), 165-194.
- Jeong, M. S., Yoo, J. E., Jeon, Y. E., & Park, S. R. (2014). A study on the continuous effectiveness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Focused on the art-flower seed school project(AFSSP).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1), 431-447.
- Joo, S. (2021). Paradigm shift, tasks in school arts education and gifted education in arts.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34, 235-258.
- Jung, J. E., Kim, M. J., & Jeong, D. E. (2022). Case studies for cultural arts education of village communit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7(1), 51-74.
- Kim, D. L., & Ahn, J. Y. (2022). The study of experiences of teachers at arts-specialized schools. *Journal of Art Education*, 69, 53-74.
- Kim, K. J.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for the employment of teaching artists: focused on the schools' teaching artists support project.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M. J., & Choi, M. Y. (2013). The influenc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gram using Youngnam Samulnori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2(1), 96-108.
- Kim, M. S. (2018). A direction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t school based on the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20.
- Kim, S. A., Ryu, H. S., Park, J. Y., & Chung, J. W. (2019). *Collaborative and cooperative*

- teaching: Guidelines on co-teaching methods for teachers and art instructors* (KACES-1910-R001).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Kim, S. H. (2010). A Study on teaching artists' identity in the artist in schools program and the program's policy goals. *Journa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3(2), 102-118.
- Kim, S. H., & Kang, J. H. (2016). *Study on the national curriculum for improving artists teacher support program* (KACES-1640-R001).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Kim, S. Y., & Lee, S. J. (2022).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art instructors and a role for strengthening arts education. *Korea Arts & Cultural*, 2(1), 15-31.
-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22a). *2021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nnual report* (KACES-2290-R002). Seoul: Author.
- _____ (2022b). *Recruitment notice for 2023 teaching artist in school support project*. Seoul: Author.
- _____ (2022c). *Recruitment and selection F&Q for 2023 teaching artist in school support project*. Seoul: Author.
- _____ (2022d). *2022 Arte academy program book*. Seoul: Author.
- Korea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2017). *Introduction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oul: Rainbow Books.
- Kwon, D. W., Lee, J. Y., Kim, B. J., & Yoon, J. H. (2013). A study of models for development of arts-specialized school.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8(2), 127-151.
- Lee, D. H. (1996). Justification of consumer-center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4(1), 1-12.
- Lee, H. N. (2020). After-school music program art instructors' perception of operations.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Lee, K. J., Choi, N. Y., Kang, J. H., & Park, E. Y. (2019). *Performanc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2018 Art-flower seed school project* (KACES-1970-R002).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Lee, S. M., Lee, J. Y., Yoon, J. O., & Kim, E. H. (2020).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eaching artist suppor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chool beneficiary. *Korean Journal of Dance*, 20(1), 149-165.
- Lee, Y. M. (2020).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art instructor class

-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Min, K. H., Kwon, S., & Lim, E. J. (2017).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raining program for school administrato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3), 73-93.
- Ministry of Education (2018). *Mid- to long-term plan for school arts education*.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2). *Basic plan for activaing school arts education in 2022*.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3). *Promotion plan for activaing school arts education in 2023*. Sejong: Author.
- Paek, K. M. (2020). Changes in the practice of art in schools driven by the Yesul-leum policy.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1), 1-14.
- Park, J. M. (2021).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tudent-centered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mall elementary schools: Focused on the ‘arts-flower seed school’ program of D elementary school in Icheon. *Education Research*, 80, 59-81.
- Park, S. Y., & Park, Y. H. (2022). Exploring teachers’ experience in training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7(4), 25-44.
- Park, W. Y. (2015). A case study on the changes in an art-flower seed school.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Rim, J. K. (2013). A study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classroom teachers and teaching artists. *Journal of Art Education*, 36, 293-322.
- Ryu, K. H., & Kim, S. K.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l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operation: Focused on the enhancement of cultural and arts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3(1), 67-95.
- Seog, M. J., Kwon, D. W., & Oh, J. H. (2010). Identifying and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of culture and arts programs in Korea: Based on the school-bas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Reality*, 40, 205-233.
- Yoon, H. R., Kim, H. K., Lee, K. U., Lee, M. S., & Ok, K. I. (2022). *2021 surve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schools* (KACES-2140-R008). Seoul: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